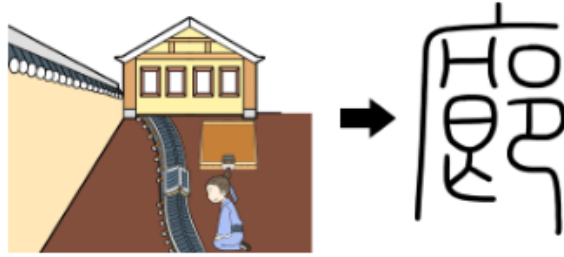


3(2)  
-  
101

회의문자 ①



廊

사랑채/  
행랑 랑

廊자는 '사랑채'나 '별채', '복도'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廊자는 广(집 엄)자와 郎(사내 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郎자는 '사내'나 '남편'이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춘추시대 노(魯)나라 때는 황제의 시종들이 머물던 궁을 뜻했었다. 사랑채는 안채와 떨어져 집주인이 손님을 접대하는 방을 일컫는다. 그래서 廊자는 별채를 뜻했던 郎자에 广자를 더해 손님을 접대하던 '사랑채'를 뜻하게 되었다. 다만 '사랑채'는 전통가옥에서나 볼 수 있는 구조였기에 지금은 많이 쓰이지 않는 글자이기도 하다.

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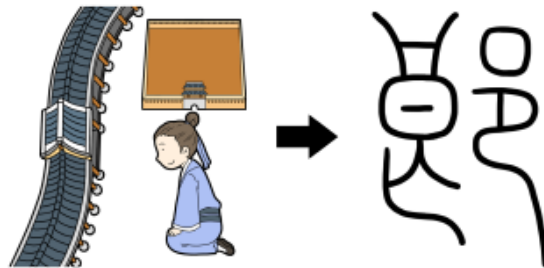
소전

廊

해서

3(2)  
-  
102

형성문자 ①



郎

사내 랑

郎자는 '사내'나 '남편'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郎자는 良(어질 랑)자와 邑(고을 읍)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良자는 황제가 거주하던 궁궐의 복도를 그린 것으로 '좋다'나 '어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좋다'나 '어질다'라는 뜻을 가진 良자에 邑자가 결합한 郎자는 '좋은 고을'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전에는 郎자가 춘추시대 노(魯)나라의 한 지명이나 황제의 시종들이 머물던 궁을 뜻했었다. 다만 한위(韓魏)시기부터는 郎자가 '사내'나 '남편'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지금은 젊은 남자를 일컫는 말이 되었다.

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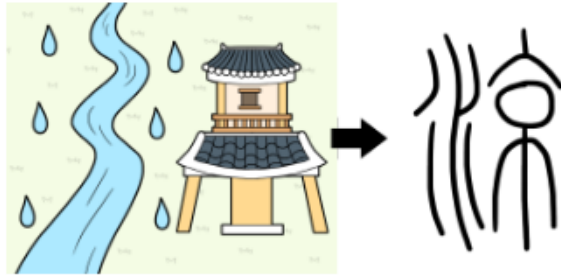
소전

郎

해서

3(2)  
-  
103

회의문자 ①



涼

서늘할  
량

涼자는 '서늘하다'나 '얇다', '외롭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涼자는 水(물 수)자와 京(서울 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京자는 높은 건물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정자'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한다. 이렇게 정자를 표현한 京자에 水자가 더해진 涼자는 더위를 피하고자 계곡가에 세운 정자라는 뜻이다. 참고로 '서늘하다'는 冫(얼음 빙)자가 쓰인 凉(서늘할 량)자가 주로 쓰이고 있다.

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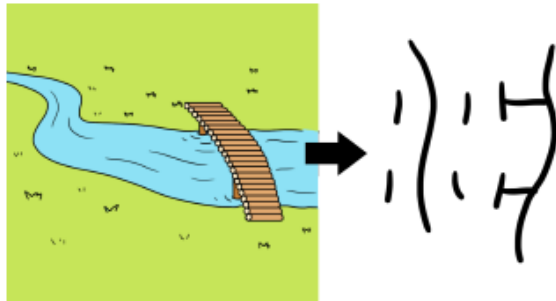
소전

涼

해서

3(2)  
-  
104

회의문자 ①



梁

들보/돌  
다리 량

梁자는 '들보'나 '대들보', '교량'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들보란 두 기둥 사이를 건너지르는 나무다리를 뜻한다. 梁자는 木(나무 목)자와 水(물 수)자, 𠂔(비롯할 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梁자의 금문을 보면 水자에 𠂔(나뭇조각 장)자만이 그려져 있었다. 𠂔자가 '널 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물 위쪽을 가로지르는 나무다리를 표현한 것이다. 소전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梁자로 바뀌게 되었다.

梁

금문

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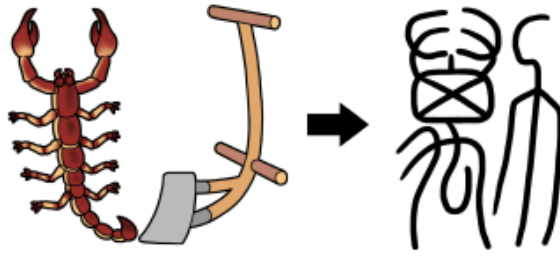
소전

梁

해서

3(2)  
-  
105

회의문자 ①



勵

勵자는 '힘쓰다'나 '권장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勵자에서 말하는 '힘쓰다'나 '권장하다'라는 것은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라는 뜻이다. 勵자는 厲(갈다 여)자와 力(힘 력)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厲자는 전갈이 집게발로 바위를 부수는 듯한 모습을 그린 것으로 '갈다'라는 뜻이 있다. 여기에 力자가 더해진 勵자는 돌을 갈아 연마하는 데는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힘쓰도록 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힘쓸 력:

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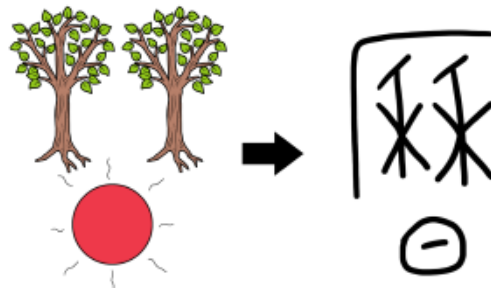
소전

勵

해서

3(2)  
-  
106

회의문자 ①



曆

曆자는 '책력'이나 '세다', '헤아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曆자는 日(해 일)자와 麻(다스릴 력)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曆자는 '지나다'라는 뜻을 가진 歷(지날 력)자에서 파생된 글자다. 갑골문에 나온 歷자를 보면 林(수풀 림)자에 止(발 지)자가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숲속을 지나간다는 뜻이다. 금문에서는 止(발 지)자 대신 日자가 쓰인 曆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태양이 일 년 단위로 지나감을 뜻하기 위해서였다.

책력 력

曆

금문

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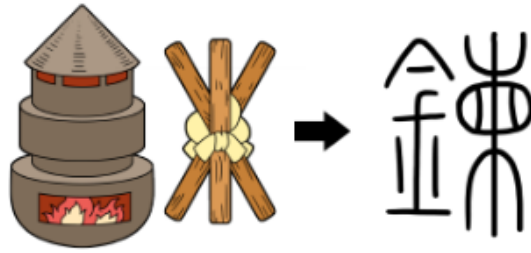
소전

曆

해서

3(2)  
-  
107

회의문자 ①



鍊

쇠불릴/  
단련할  
련:

鍊자는 '(쇠를)불리다'나 '(몸·정신)단련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鍊자는 金(쇠 금)자와 束(가릴 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束자는 장작더미를 묶어 놓은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鍊자 이전에는 火자가 들어간 煉(불릴 련)자가 먼저 쓰였었다. 煉자는 쌓아놓은 장작더미에 불을 붙인다는 뜻으로 '제련'이나 '용해'가 본래의 의미였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金(쇠 금)자가 들어간 鍊자가 만들어지면서 장작더미에 쇠를 녹여 담금질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게 되었다. 鍊자에는 '(몸·정신)단련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는 여러 번 담금질해야 좋은 품질의 쇠가 만들어지듯이 사람의 신체나 정신력도 오랜 단련을 통해 강해진다는 의미에 비유됐기 때문이다.

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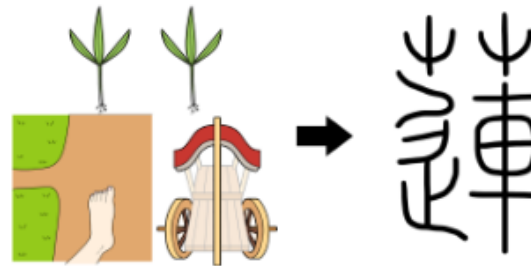
소전

鍊

해서

3(2)  
-  
108

회의문자 ①



蓮

연꽃 련

蓮자는 '연'이나 '연꽃'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蓮자는 艸(풀 초)자와 連(잇닿을 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連자는 수레가 연이어 지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잇닿다'나 '연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연은 여러해살이 수생식물로 연못이나 습지에서 군체를 이루며 자란다. 연꽃이 있는 습지를 보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蓮자에 쓰인 連자는 발음 외에도 줄줄이 군체를 이루며 사는 '연'의 특징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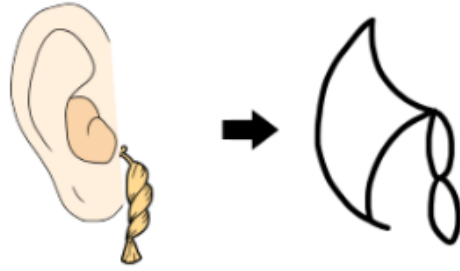
蓮

소전

蓮

해서

회의문자 ①



聯

연이를  
련

聯자는 '잇다'나 '연결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聯자는 耳(귀 이)자와 絲(실 사)자, 鼎(술 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聯자는 耳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사람의 '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갑골문에 나온 聯자를 보면 耳자에 絲자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사람의 귀가 아니라 술의 고리에 끈을 걸어놓았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갑골문에서부터 소전까지는 이렇게 고리에 끈을 걸어놓은 모습으로 그려졌었지만, 해서에서는 여기에 鼎자가 더해지면서 '술의 고리'라는 뜻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의 聯자는 술에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연결하다', '연계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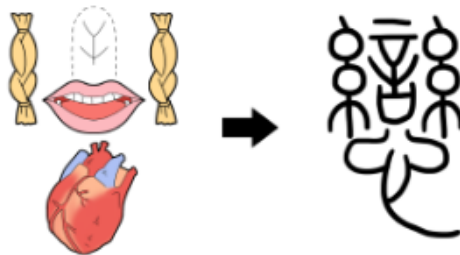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戀

그리워할  
/그릴  
련:

戀자는 '그리워하다'나 '연애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戀자는 心(마음 심)자와 戀(어지러울 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戀자는 絲(실 사)자 사이에 言(말씀 언)자를 넣은 것으로 '어지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뜻과는 관계없이 실타래가 내려오는 모습만이 응용되어 있다. 戀자는 실타래가 치렁거리며 내려오는 모습을 그린 戀자를 응용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소전



해서